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평신도주일** :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평신도주일입니다.

**교사세미나** : 교회학교 교사세미나가 오늘 오후 1: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마늘 주문** : 단양 유암교회 교인들이 재배한 무농약 마늘 주문 받습니다. 한지형 육쪽마늘 3kg 38,000원(크기 2.8cm 이상) 입니다.

**결혼** : 박병구 집사님의 아들 박근열 씨와 이한나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3일(토) 오후3:30 하우스본오스티엄(신사동)에서 있습니다.

**신앙실천** :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자리를 '나의 자리'로 고집하지 맙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예배	삼상 15:34-16:13 / 시 20	2부 예배	마 6:25-34
예배	고후 5:6-10 / 막 4:26-34		

오늘 식당 봉사 : 권미숙 강지선 조경자 고헌준 윤찬란 최옥자 황재모 김대근

다음 주 식당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장미경 이영아 김세진 송동준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 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관계당국이 좀 더 책임 있고 민첩하게 대처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호국보훈의 달 유월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신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5:17 ..... 인도자

♣ 교 독 문 ..... 99. 나라 사랑(1)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삼상8:4-20 고후4:13-5:1 막 3:20-35 ... 하진솔 선생

II. 롬 11:25-36 ... 김 극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 찬양대

말 씬 ..... I. 누가 내 형제들이나 ..... 김기석 목사

II.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순배	강인식	김정숙	곽상준	최경미	김기석	김희우	김기성	이은정
김나름	김남종	오복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수	정자현	김정주	김정미	김중수
이순정	김지운	정영우	김태영	이효심	노성희	김만균	문홍일	박미연	방극숙
방문성	박해경	신진식	변혜정	안종일	정현주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이건우
이계숙	이광섭	김수연	이동천	이미휘	이범석	류정욱	이용석	임고은	오재형
임영선	임주빈	최현옥	장기욱	장미경	장재영	김재영	장혜정	정복순	정연희
정재기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최형균	강경화	한기택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허성호	진은혜	홍소형	무명				

### 감사헌금

강순배 김성봉 정다운 김재흥 최희영 김진중 김태정 박숙미 신진식 변혜정  
 이은혜 이종현 주현철 강미선 황경순 무명10

### 생일감사헌금

박용진 김용원

### 녹색꿈헌금

김범윤 김재환 김진선 김정주 김정미 김향자 은종인 무명3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 해 숙	박 성 희	오 송 경	백 해 숙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이 소 순	이 재 문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박 정 숙	박 경 선
베 다 니	박 흥 재	박 흥 재	쉴	조 영 순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권 미 숙	허 정 윤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김 금 순	이 순 정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윤 수 진	김 필 순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오 현 정	정 현 주
나 사 랫	김 경 혜	홍 춘 숙	김 경 혜	김 희 우
다 메 섹	박 해 경	박 해 경	최 숙 화	최 영 혜
두 란 노 1	김 재 흥	오 자 영		
두 란 노 2	김 재 흥	송 형 운		
두 란 노 3	이 범 석	이 진 영		
두 란 노 4	이 범 석	곽 상 준		
두 란 노 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본보기

여기 나비 한 마리가 보여주는  
 본보기가 있네  
 거칠고 단단한 바위 위에도  
 행복하게 앉아 있는 나비  
 이 거친 돌 위에  
 친구 하나 없이 혼자인 나비

내 침상이 지금 딱딱하더라도  
 나 또한 개의치 않으리  
 나도 이 작은 나비처럼  
 내 기쁨을 만들어가리  
 나비의 행복한 마음은 바위를  
 꽃으로 만드는 힘이 있으니

- 윌리엄 데이비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	새교우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부족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십시오.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께: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내 맘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연구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이자에 선생 곽상준 집사

6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진정숙 이오복 김현주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 본보기

숲 속에 있는 우리 집 우편함에 새가 동지를 틀고 알을 낳은 것은 지난 오월 초순이었습니다. 알이 배달된 것이죠. 달갑지 않은 광고 지나 들어오고 세금고지서나 전해지던 우편함에 알이 오다니! 오래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우편함은 ‘생명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새가 알을 깬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함께 세 들어 살던 맘씨 고운 아낙은 우편함 하단에 “우체부 아저씨, 새가 동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으니, 우편물은 우편함 아래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하는 글귀까지 코팅하여 붙여놓았지요. 못 생명을 사랑으로 보듬는 마음이 오롯이 묻어 있는 쪽이었습니다. 같은 뜰 안에 사는 우리는 알에서 깨어난 새 생명들이 셋노란 주둥이를 벌리며 짹짹거리는 것을 보면서 마냥 행복에 겨웠습니다. 생명의 본성에 충실한 벗들이 안겨다준 행복. 새나 꽃과 같은 자연의 벗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인생살이가 흙덩굴처럼 얽히고설켜 도무지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때면 대자연의 벗들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그들의 ‘말없는 가르침不言之教’이야말로 대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소중히 여겨야 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딱딱한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나비를 자기 삶의 귀감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팔랑거리는 나비 한 마리가 시인의 스승이 된 것이지요. 꽃향기도 묻어나지 않고 부드러운 바위 위에 사뿐 내려앉은 나비! 시인은 바위 위에 내려앉은 나비의 모습에서 행복을 읽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기쁨으로 물들이고 환한 공명을 일으킨 나비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인들은 의인화의 명수. 시인들이 나비나 바위 같은 자연의 벗들을 의인화하는 것은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함이지요. 위대한 시심詩心을 간직하고 있는 예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슬한 걱정으로 힘겨워할 때, 예수는 엉뚱하게도 손을 들어 푸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켰지요. 저 어여쁜 피조물들처럼 그대들을 창조한 조물주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나라고.....

시인이 나비한테서 발견한 행복한 마음, 그건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자족을 눈짓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족하는 삶, 그것만큼 풍족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웅달샘처럼 하느님은 우리 속에 그런 자족의 품성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존재의 충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생을 긍정하는 그런 품성을. 당장 굶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 생계를 꾸려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생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끝없는 소유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끝내 그것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지 않던가요. ...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빌4:12)

언제쯤이면 우리도 성 바울처럼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천지만물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럴 수 있을까요. 행복의 원천인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면 더 이상 그분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 않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여 땅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선 나무처럼,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 음악의 선율에 따라 흐르는 춤꾼처럼, 나도 하느님이 연주하시는 우주의 선율에 따라 흐르는 춤꾼이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바위를 꽃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나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팔랑팔랑, 행복의 비결을 눈짓할 수 있지 않을까요.